



여좌주보

부활 제 6 주일
2022. 5. 22. 제1287호

익어가는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영록(떠온 글)

익어가는 벼는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익어가는 과일은 자신이 맛을 내기 위해 인내를 통해 숙성해 가는 것입니다. 떨어졌던 생각으로 맛이 들지 않는 포도주도 오랜 세월이 마음을 빚을 때 비로소 숙성의 맛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도 어린 사람과 나이든 사람의 마음이 다르듯 인생을 알지 못한다면 돈을 주더라도 노인께 지혜와 인품을 배워 멋진 삶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은 죽는 날 까지 여러 번의 탈피를 통해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도 좋고 유능한 능력도 좋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익지 않으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내용물이 없는 삶일 것입니다.

승이고 그분들을 통해 인격을 쌓을 때 비로소 세상의 진주를 알게 되며 그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노인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면 그분들에겐 젊은이들이 가지지 않는 인품이 있습니다. 후덕한 마음으로 허물없이 이웃과 떡을 나눌 줄 알며 연배가 비슷한 분들과 처음 만났어도 좋은 말동무가 되어 덕담이 오고 갑니다.

이런 분들의 지혜와 지식을 젊은이들이 가슴에 품어 앓는다면 젊음과 함께 따스한 정이 흐르는 높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든 분들의 진정한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실을 깨닫는 멋진 인격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시대의 노인은 우리가 배워야 할 스

주일전례

제 1독서 사도 15,1-2.22-29

화답송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제 2독서 묵시 21,10-14.22-23 또는 22,12-14,16-17,20

복음 요한 14,23L-29 또는 17,20-26

부활 제 6주일 화답송【다해】

시편 67(66), 2-3. 5. 6과 8



천주교 마산교구 여좌동 성당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http://yeo.cathms.kr>

51689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로 89번길 9
사무실 (055)545-3313 mj3hc@cathms.or.kr
사제관 545-3311 수녀원 545-3312